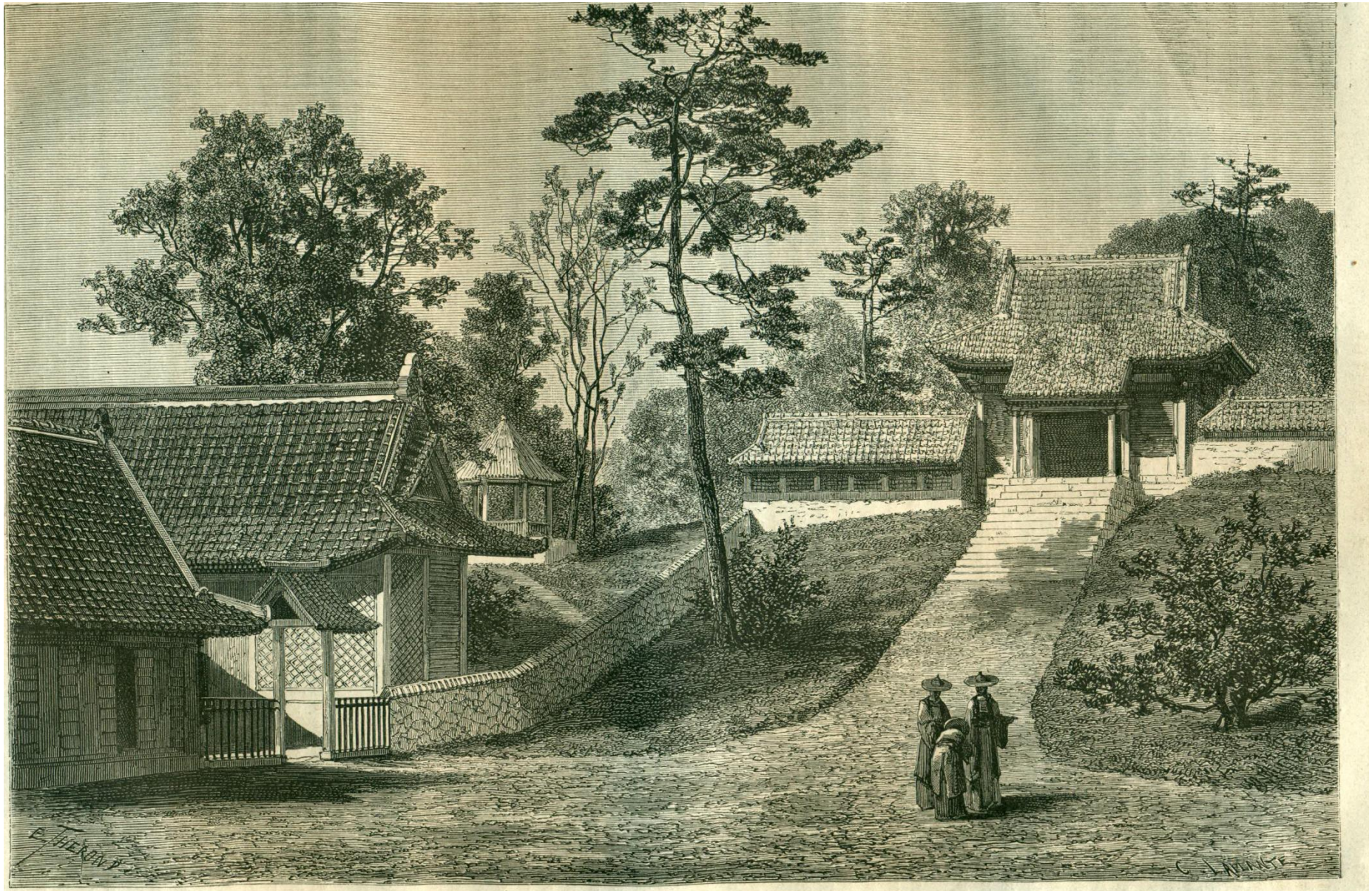
강화의 비교우위를 찾아서
For Finding Comparative Advantage of GangHw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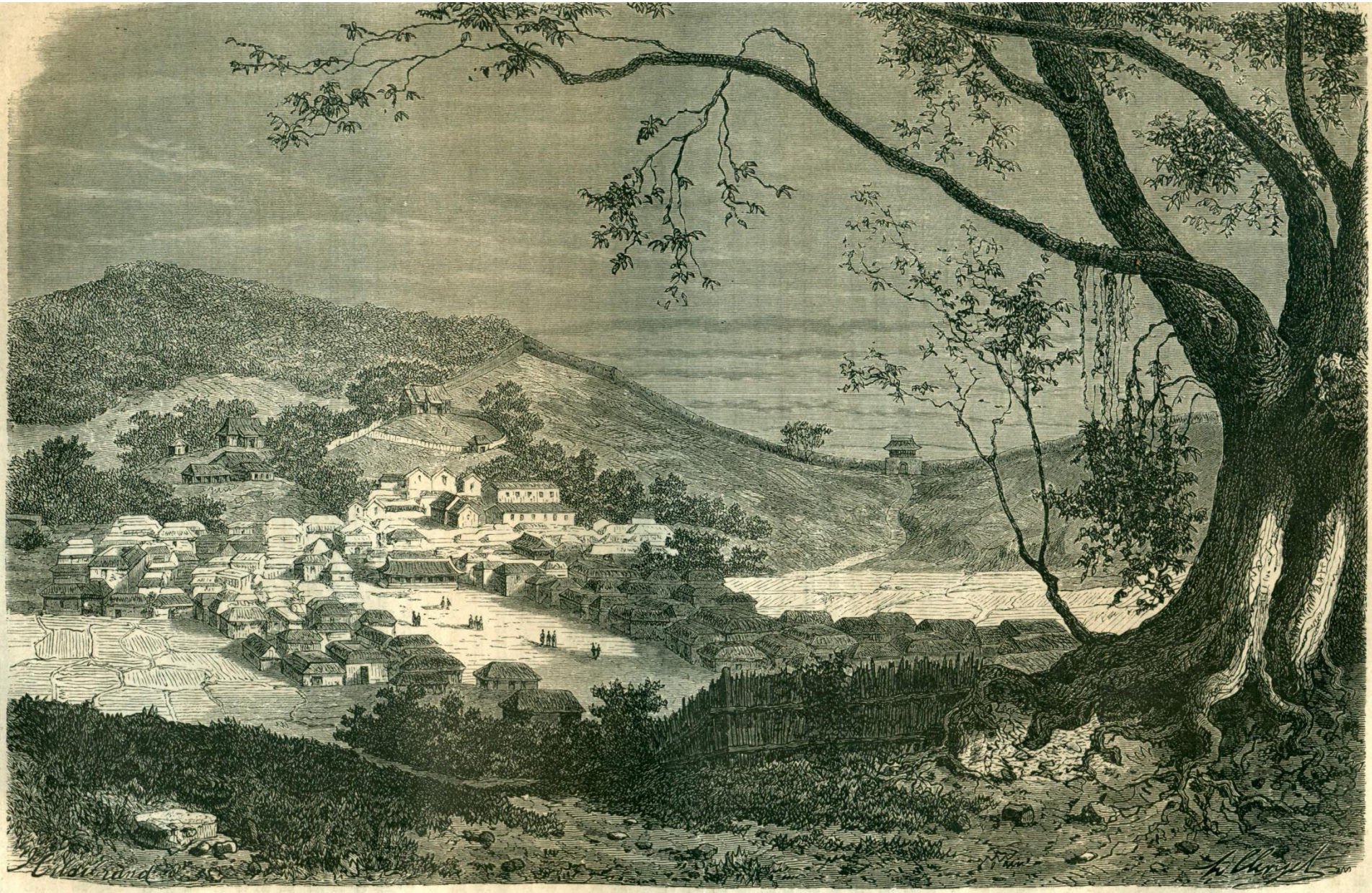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성호

世宗實錄地理志(15세기)
鄕所部曲
重農主義(Physiocrat:Quesnay)
儒學(Confucianism)
自然哲學(The law of Nature)
江華 沁都 穴口



Yamoun du gouverneur, à Kang-hoa. — Dessin de E. Therond, d'après M. Zuber.



Vue de Kang-hoa. — Dessin de H. Clerget, d'après M. Zuber.

순위	전쟁명	전쟁기간	사망자 수	1일 사망자 수	전쟁 첫해 미국 인구 수	총인구 대비 전쟁사망률
1	미국내전	1861–65	750,000	520	31,443,000	2.385% (1860)
2	제 2차 세계 대전	1941–45	405,399	297	133,402,000	0.307% (1940)
3	제 1차 세계 대전	1917–18	116,516	279	103,268,000	0.110% (1920)
4	베트남 전쟁	1961–75	58,209	11	179,323,175	0.032% (1970)
5	**한국전쟁**	**1950–53**	**54,246**	**45**	**151,325,000**	**0.036% (1950)**
6	미국독립전쟁	1775–83	25,000	11	2,500,000	1.00% (1780)
7	1812년 전쟁	1812–15	15,000	15	8,000,000	0.207% (1810)
8	멕시코 미국 전쟁	1846–48	13,283	29	21,406,000	0.057% (1850)
9	이라크전쟁	2003–2011	4,497	2	294,043,000	0.002% (2010)

同文

- 1. 양요(洋擾)의 시대 황화(皇華) 문명 쇠락하다.
- 오늘날 세계 최강국 미국의 언어를 동문(同文)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한국을 미국의 종속국이라 할 수 있을까? 19세기 중후반 조선을 찾은 많은 외지인들은 조선이 한문을 사용하는 것을 놓고 조선을 중국의 종속국가라고 묘사

同文彙考

- 19세기 제국주의가 등장하기 이전 동아시아 역사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지배해온 실체는 동문(同文)이라는 외교문화였다. 동일한 글쓰기 즉 동문(同文)을 통한 국가와 국가와의 의사소통 능력이 국가를 위압하고 정복하는 힘보다 우위에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과 중국의 외교문서를 '동문휘고(同文彙考)'라 지칭한 것이다.

皇華集

- 황화집(皇華集)은 조선과 명 사신이 서로 동문으로 주고받은 시를 모은 책으로 금속활자로 만들어져 당대 최고 경지의 동문문명(同文文明)을 뽐내고 있었다. 특히 14세기말 고려와 명과 그리고 조선과 명과의 군사적 마찰은 동문시(同文詩)의 세계 황화집(皇華集)으로 승화되어 평화롭게 해결

同文-洋擾

- 1,000년의 세월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지배해오던 '동문(同文)질서'는 19세기 중후반부터 급격히 붕괴된다. 19세기 중후반 동아시아를 지배한 것은 새로운 세계질서 즉 국가가 국가를 지배하는 제국주의 시대이다. 제국주의라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도래를 조선과 명나라는 '양요(洋擾)'로 규정하였다

- 조선과 명나라는 역사적으로 바다를 건너온 해적이 절정에 도달했던 14-15세기 건국한 국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19세기 다시 태평양으로부터 밀고 들어오는 서양 세력을 양요라고 인식하고 문을 닫은 것은 당연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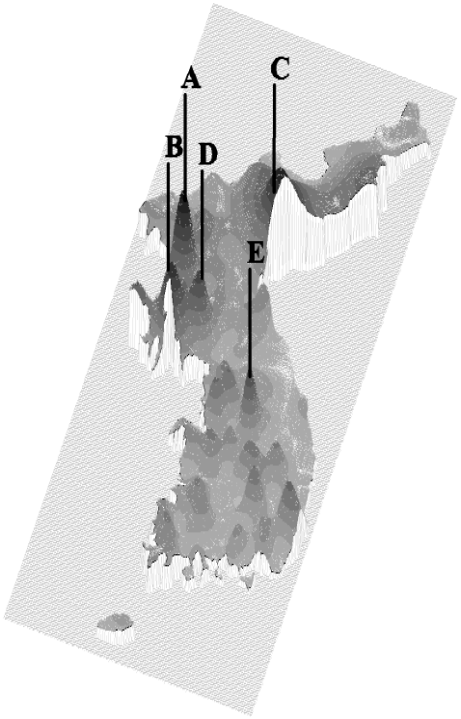
- 밀약은 21세기 오늘날에도 이른바 ‘한국 지우기(The Passing of Korea)’로 여전히 강력한 힘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평화헌법 9조 수정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 이 밀약 이후 2년 뒤인 1907년 미국 26대 대통령 루스벨트는 네덜랜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에서 해양세력 중심의 국제법 협약의 기초를 만들게 된다. 한마디로 제너럴셔먼호 사건은 일본의 ‘동아시아 배반(脫亞入歐, Good-bye Asia)’과 ‘한국 지우기(The Passing of Korea)’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서로가 잘못 인식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2019년 현재까지 약 153년의 세월을 오해와 반목과 전쟁으로 보내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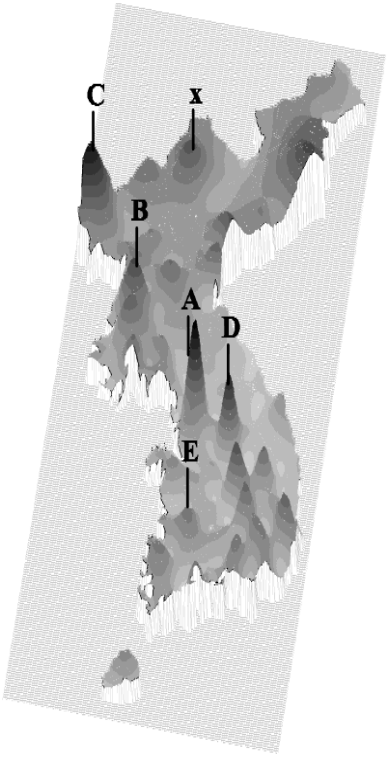
- 미국과 북한이 얼마나 오해와 오해로 서로 불신하고 갈등과 전쟁으로 치달아 왔는지는 미국의 전쟁사 기록을 보면 더욱 확연해진다. 200년간 해외 군사력 파견과 전쟁 기록 가운데 한국과 관련된 기록은 매우 특이하다. 1798년에서 2002년까지 미국이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치른 전쟁은 11번이다. 1812년 영국과의 전쟁, 1846년 멕시코와의 전쟁,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 제 1차 세계대전시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와의 전쟁, 제 2차 세계대전시 일본, 독일, 이탈리아,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와의 전쟁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식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전쟁을 수행한 대표적인 사례는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이란 이라크 전쟁 등이다.

전국 인구에서 강화인구 비중

목.군현호수	15세기	18세기
강화	2,445	9,801
수원	1,842	15121
양주	1,481	12465
광주	1436	10568
이천	1026	4967
해풍	792	
고양	679	3301
교하	590	2474
여흥	538	
원평	494	
남양	487	6315
통진	458	3372
용인	457	4859
부평	429	3169
양성	425	3104
안성	424	4589
음죽	390	2063
포천	371	2598

15세기 18세기 전국 인구분포





- 양요(洋擾)'의 시대 명나라나 청나라보다도 훨씬 더 강고한 중화세계질서 즉 '동문(同文)질서'를 이룩한 황화문명국가 조선은 조공국가 사대주의 종속국가 조선으로 자리 매김 된 것이다. 동아시아의 양요(洋擾)는 중국과 영국의 충돌에서 시작되었다. 1차 아편전쟁(1840년-1842년), 제2차 아편전쟁(1856년-1860년)이 그것이다. 이 소요가 조선으로 번진 것이 제너럴셔먼호 사건(1866) 병인양요(1866) 신미양요(1871), 청일전쟁(1894-1895), 러일전쟁(1904-1905)이다. 역사의 모순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동문(同文)을 붕괴시킨 양요(洋擾)의 시대에 영국과 미국은 영어를 동문(同文)으로 앵글로 색슨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열어나간다. 양요의 한가운데 강화가 놓였다.

- 미국의 선교사들이나 미국 정부의 첩보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조선에 대한 모든 기록과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지만, 한자와 한글로 기록된 조선의 기록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역부족이었다. 미국의 조선에 대한 첩보 보고서는 주로 일본학과 중국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조선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과 어설프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본국에 보고했다. 이들의 보고서를 기초로 미국은 20세기 초 동북아시아의 외교정책 방향을 세워나갔다. 그 대표적인 협약이 가스라.태프트밀약(Taft-Katsura agreement)이고 그 뒤에 서양 문명 우월론자인 당시 미국 대통령인 루스벨트가 있다.

- 가스라.태프트 밀약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과 일본의 밀착은 새로운 해양 강국 미국으로서는 일본을 태평양 해양 세력의 조력자로 삼아서 구 대륙세력인 러시아와 중국을 봉쇄해야 한다는 전략 해양 세력 즉 앵글로색슨 전략에 기초한다. 이 밀약의 골자는 그 동안 해양 세력과 대륙세력의 중간 연결 통로 역할을 도모한 대한제국의 독자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1910년 한일합병보다 5년이나 앞서 미국이 주도한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 구도에 대한 합의이다. 강화도 조약 다시 생각하기

Public Goods

- 內城, 外城, 倉城, 鼎足山城
- 52墩(輿地圖書),
- 摩尼山:摩尼=如意 我有摩尼 如意珠 寶珠MONEY
- 開霽之時 若窮眼力 則漢拏山可以 望見云
- 8浦6津
- 6川;東洛川
- 9壇8廟;塹城壇(瞻星,參星)
- 4牧場漁場;鎭江
- 12樓6亭;晏波(남),瞻華(서),望漢(동),燕尾

河東亦踵謬而成麗史使國邑山
顛倒遠近移掇南北而謂之信史
遺存者互相參驗為地理考丙子
檀君疆域考

檀君疆域無考而箕子代檀氏其提封
之世亦當然矣古記云北夫餘為檀君
東之北千餘里蓋檀氏世衰子孫北遷
矣麗史地志江都摩尼山塹城壇世傳
山一名三郎城世傳檀君使三子等之
以漢水矣

太伯山考

三國遺事云太伯山今妙香山在今寧遠府
并從其說太伯之變為妙香未知在於
名號多出於僧釋妙香之稱亦僧家文
山記曰山在鴨綠水南與遼為界長白

高句麗:穴口/新羅;海口/高麗:江都/江華

- 本都 彈丸一島 而摩尼爲國內名山 --如拱如揖
- 高麗松嶽 在其北開面向南 氣狀雄麗蔚 有龍盤虎蹲之勢 此間必有千百年盤礴(널리덮힐박)不散之佳氣也 在昔太白神人 以靑丘首出之君長 築壇雲巓(산꼭대기전) 躬自醮星三郎 命城于鼎足
- 建置沿革 高句麗時初名穴口 新羅景德王 改號海口

穴口 구멍구지

- 穴 굼 구멍
- 甲比 굼
- 甲忽 穴城 굴 동굴
- 口 고주 고지곳 꼬지
- 廬
- (禪源寺) (海雲堂
- 杏村居士海雲堂

강화학파(유교와 기독교의 만남)

- 정제두의 양명학은 **강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문인과 자손들이 전수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게 되었으니, 이광사(李匡師), 이광려(李匡呂), 이광명(李匡明), 아들 이충익(李忠翊), 이건창(李建昌) 등이 그들이다. 그뒤 일제강점기의 양명학은 박은식(朴殷埴), 정인보(鄭寅普)
- 정제두(鄭齊斗), 하곡(霞谷)里
- 王陽明先生實記, 陽明學演論(鄭寅普)
- 중국의 명대에 왕수인(王守仁, 호: 양명 陽明)이 송대 육구연(陸九淵)의 심학(心學)을 계승하여 주희(朱熹)의 주지주의적(主知主義的) 이학(理學)과 대(對)가 되게 발전시킨 철학. 양명학의 중심사상은 심즉리(心卽理) 지행합일(知行合一) 치양지설(致良知說)
- 양지양능(良知良能)
- Adam Smith 도덕감정론,

- 선원사(禪源寺)를 거듭 지나다가 도중에 해운당(海雲堂)을 바라보다.
- 높다란 고운 색채가 남기 빛에 잠기어라 / 岧嶢金碧鎖嵐光
- 팔부의 용천은 참으로 아득하기만 하네 / 八部龍天信渺茫
- 조그만 방이 있어 조용히 앉았을 만하니 / 獨有小窓堪靜坐
- 저게 바로 행촌거사의 해운당이로세 /
- **杏村居士海雲堂**
- 마니산 기행(摩尼山紀行) 목은시고 제4권

단군/卒本:太/고인돌

- 단군
- 고인돌황해도 은율군 운산리에 있는 것은 8.5××6m, 강화군 부근리의 것은 6.3××5.3m
- 말목장
- 사계절 온도차/조석간만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모델:민주주의 시장경제 지방자치
15-18세기, 20세기, 21세기 경제모델

- 남한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였지만 경제기획원이 중심이 되어 불균형성장론에 입각한 중앙집권형 계획경제를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지방 분권형 혹은 균형형 자유시장 경제정책은 외면해왔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한 북한도 사회주의형 계획경제정책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식민지시대와 분단시대 한반도 전체의 경제정책 기조는 계획경제라고 보는 것이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 1970년대까지 자유시장경제체제건 사회주의 통제경제체제이건 남북한 경제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이유는 모두 중앙집권형 계획경제가 정책 기조

동아시아 민주주의 성공국가:
한국:민주주의 체제
중국:여전히 중국 공산당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
일본:보수 우익 중심의 정치체제
북한:공산주의 체제

- 남한의 시장경제체제가 북한의 통제경제체제에 비해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 1970년대 중후반 남북한에서 일어난 변화는 무엇인가? 남한의 농촌에서 전개된 새마을운동과 도시에서 전개된 민주주의의 성장을 가장 큰 변화
- 남북한 전체를 역사적으로 보아 20세기 후반 남한에서 일어난 새마을 운동과 민주주의 운동의 성공은 중앙집권형 계획경제를 탈피하여 자유시장경제체제 그리고 지방분권형 균형성장이라는 국가 경제정책의 주요 기조의 변화를 일으킨 긍정적인 요인
- 중국과 일본 동아시아 전체를 비교해도 남한의 민주화와 새마을운동은 비교우위를 갖는 긍정적인 요인
- 버마 베트남등 한국 모델 수용(鄕約)

Village movement(洞憲/洞約/洞規)

- 후천(朽淺) 황종해(黃宗海 1579~1642) 선생이 남긴 문집 속에는 '동규사십육조(洞規四十六條)'를 기재해 놓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春秋有講信會 以修整約中之事 每年定有司 兩班二員 下人二名 使主掌約中之事 及秋講信時相遞 而所掌文書器用等物 計數傳與
-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강신회에 참석한 사실을 전달해 주는 기록이 있어 여기서 소개한다. 이 규약은 『동명선생문집』 권6에 함흥부 향약으로 기재되어 있다. 동명(東溟) 정두경(鄭斗卿 1597~1673)은 이항복의 제자로 시문에 능통하고 1637년 병자호란 때에는 적을 방어하는 열 가지 어려움에 대해 항소하기도 하였다.
- 一。春秋行講信禮。約長率大小上下齊會。直月中坐。抗聲讀六諭八條。使百姓男女皆得通曉。讀畢。有罪者科罰。善人則嘉奬。男女異行。坐以年齒。兩班爲上廳。下人爲下廳。各提酒果。相與獻酬。飮畢乃罷。令下有司糾戒。俾無醉呼失儀之患。
- 봄 가을로 강신례를 행하는 법이다. 약장이 대소 상하 계원들의 모임을 주도한다. 직월이 가운데 앉아 큰 소리로 6가지 깨우쳐야할 조목과 8가지 조약을 낭독하여 백성 남여 모두 환히 알게 한다. 낭독이 끝나면 죄가 있는 자는 벌을 부과하고 좋은 일을 한 사람은 훌륭한 것을 장려한다. 남여는 서로 다른 항렬에 앉고 앉는 순서는 나이 순서로 한다.

조선사회

- 큰 도가 행하여지는 대동 사회에서는 천하가 모두 공에 속하였다. 현명한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과 함께 선발되어 신용을 강구하고 친목을 도모하였다.(大道之行 天下爲公 選賢與能 講信修睦)”「예운」편
-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에서 밝힌 다음과 같은 국가와 군주와 일반민과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성격 규정은 주권의 소재와 관련된 조항으로 새삼 주목되는 부분이다.
- 蓋君依於國 國依於民 民者國之本 而君之天 故周禮獻民數於王 王拜而受之 所以重其天也 爲人君者 知此義 則其所以愛民者 不可不至矣

한국과 미국

- 『조선경국전』에서 백성과 하늘을 같은 동격으로 규정한 것은 유교 경전에서 『시경(詩經)』「증민(烝民)」편과 정치에 가장 많은 부분을 담고 있는 『서경(書經)』「태서(泰書)」 上의 다음 구절에서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詩經』「烝民」, 天生烝民 有物有則 好是懿德
- 하늘이 이 백성을 내니 만물은 그 법칙이 있기 마련인데 인간은 아름다운 덕을 좋아 한다.
- 『書經』泰誓 上 天矜于民 民之所慾 天必從之...天視自我民視 天聽自我民聽
- 하늘이 백성을 아끼니 백성이 바라는 바는 하늘이 반드시 그것을 따른다. 하늘은 백성이 보는 것을 스스로 보며, 백성이 듣는 것을 스스로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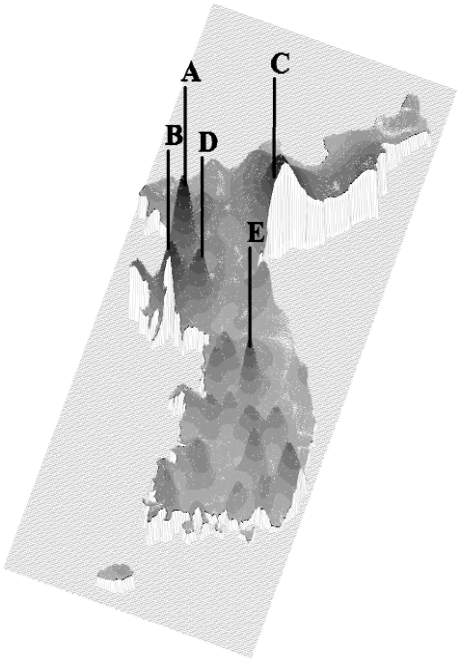
미국 독립선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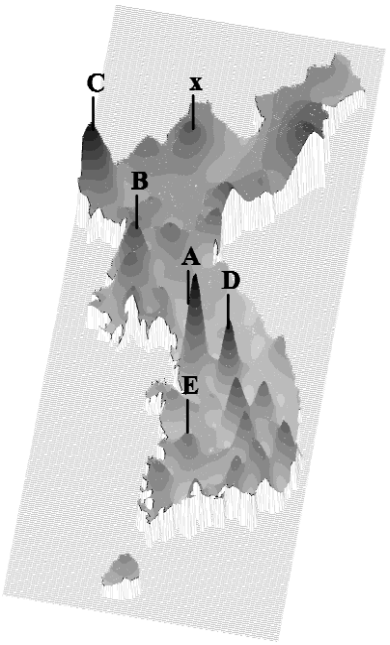
- 윤상(尹祥 1373~1455)의 다음과 같은 『시경』「증민」편 해석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 天生烝民 有物有則 天之生人 旣有是物, 則**天之賦人**, 必有是性, 夫有物則有性者,
- IN CONGRESS, JULY 4, 1776
- The unanimous Declaration of the thirteen united States of America
- When in the Course of human events it becomes necessary for one people to dissolve the political bands which have connected them with another and to assume among the powers of the earth, the separate and equal station to which the Laws of Nature and of Nature's God entitle them, a decent respect to the opinions of mankind requires that they should declare the causes which impel them to the separation.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1554~1637) 선생이 1601년에 만든 족계 규약이다.
- 一。鄕曲中凡民。豈待立朝事君。然後有以致君臣之義哉。惟能各職其職。各事其事。以**不負國家生養囿育之恩**。乃**民之義也**。讀書業士者。其志固有望於他日矣。至於服田食力之人。凡其一衣一食一坐臥之安。無非國家之澤也。其所以報效之道。只在愼貢賦力徭役而已。今在十年兵火之後。民力固渴矣。然猶能不飢不寒。上事下育者。其以爲自己之功耶。吾契中共相與勉之。.
- 一。亂離以來。人困衣食。**皆知農業爲本**。故莫不力耕務稼。固不待相勸。但一兩歲稍稔以後。人頗賤粟尙飮。此乃惰農之兆也。吾契中。其各戒之。
- 난리가 난 이래 사람들의 의식이 곤궁해져서 농업이 근본임을 모두 다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힘써 밭을 갈고 농사일에 힘쓰지 않을 수 없다. 오로지 서로 권분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다만 양 년간 풍년이 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소미를 천하게 보고 술 마시는 것을 숭상하게 되었으니 농사일에 나태해질 조짐이다. 우리 계에서는 각별히 그것을 경계한다.

- 一。亂離以後。爭田訟奴之事。處處成風。此甚不美之俗也。若其弱爲强所侵。直爲枉所屈。拙爲詐所欺。賤爲貴所奪者。勢固不得不求辨於法所矣。其或乘時僥倖。非理好爭者。極可醜也。凡爲契中。切宜戒之。毋作一契之羞也。而況喪亂之餘。閭閻丘墟。阡陌蒿荻。如能力耕。孰患衣食。而必欲廣占膏腴。謂爲子孫計者在此(旅軒先生文集卷之八)
-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의지하려는 것을 버리고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규약에 명시한 것이 흥미롭다. 두 번째는 전쟁으로 사람들이 먹는 것과 입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농업이 근본 산업임을 절실히 깨닫게 되어 중농주의 인식이 보편화되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난리 이후에 복구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 원인으로 개개인의 자발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동계를 결성하여 일을 처리한 것도 상당히 기여

15세기 18세기 전국 인구분포





전국 인구에서 강화인구 비중

목.군현호수	15세기	18세기
강화	2,445	9,801
수원	1,842	15121
양주	1,481	12465
광주	1436	10568
이천	1026	4967
해풍	792	
고양	679	3301
교하	590	2474
여흥	538	
원평	494	
남양	487	6315
통진	458	3372
용인	457	4859
부평	429	3169
양성	425	3104
안성	424	4589
음죽	390	2063
포천	371	2598

강화의 경제적 위상(15세기-21세기)

- 조선조 7대 道路
- 1)江華路:한성-양천-김포-통진-강화
- 2)義州路:한성-고양-파주-장단-개성-봉산-황주-평양-정주-의주
- 3)慶興路:한성-양주-금화-함흥-길주-종성-은성-경흥
- 4)平海路:한성-평구-양근-지평-원주-강릉-평해
- 5)東萊路:한성-용인-양지-충주-조령-문경-상주-대구-밀양-동래
- 6)統營路:한성-과천-수원-진위-직산-천안-공주-노성-은진-전주-임실-남원-운봉-진주-사천-고성-통영
- 7)濟州路:한성-삼례(통영로와 같다)-정읍-장성-나주-영암-해남-제주
- 현재 고속도로와 비교:대부분 경상도와 서울을 기본 축으로 도로건설(식민지형 도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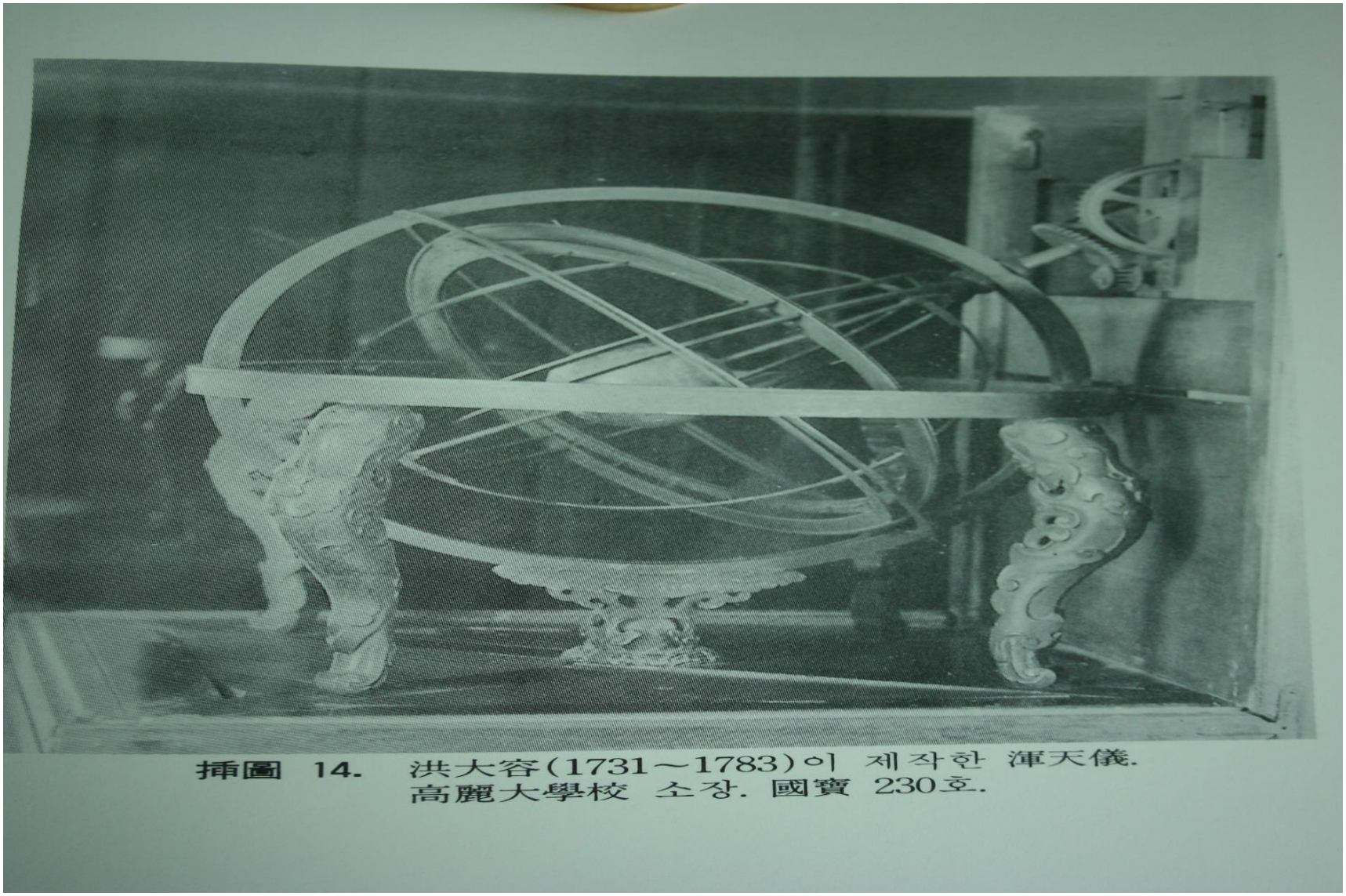
江華:River Flower or River Gloria

江華:The Center of Seaport,Airport,CommunicationPort

海路/驛路/空港/通信(烽燧)

- 국토이용균형의 상실의 시대:20세기 식민지시대 분단시대
- 국토이용 균형의 회복의 시대:21세기 평화와 통일시대
- 회복:15세기 18세기 역사적 전통
- 21세기 강화를 중심으로하는

17-18세기 지구 인식과
U.S.A LOC & 홍대용



挿圖 14. 洪大容(1731～1783)이 제작한 渾天儀.
高麗大學校 소장. 國寶 230호.

比較優位:Comparative Advantage

- FIND COMPARATIVE ADVANTAGE
- SPECIALIZATION
- DO BEST
- FROM VILLAGE TO GLOBAL MARKET
- GLOVAL VILLAGE MOVEMENT
- FTA FOR GOOD OPPORTUNITY
- TRADE MAKE EVERYONE BETTER O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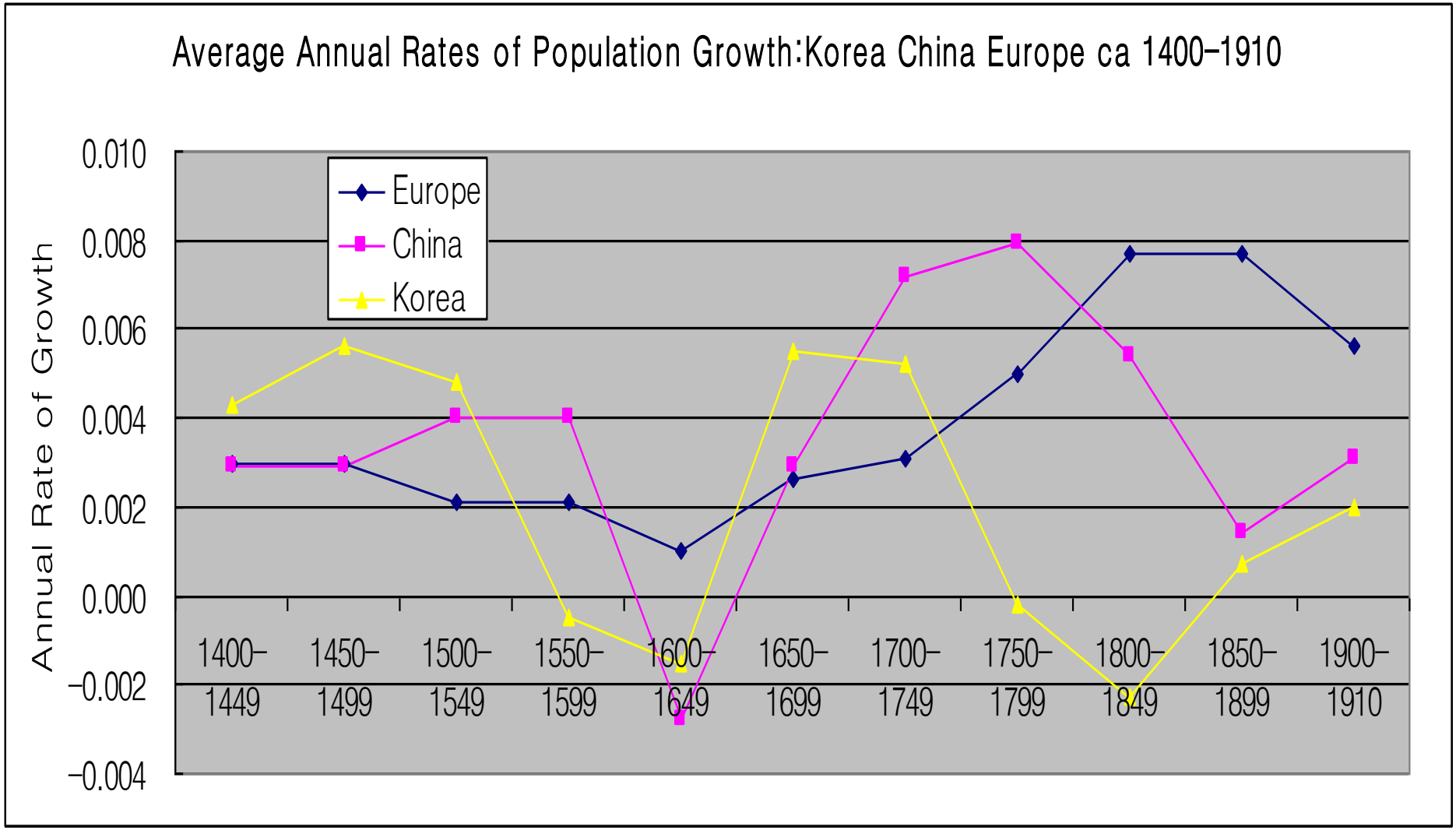
江華/廣州/高靈:磁器所 上品

- GLOBAL VILLAGE MOVEMENT
- 수공업 장인대학 48번 상가거리
- 유기농 완전경쟁시장 철종 등극로
- 태권도 사회체육대학 진무영+심도직물
-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평생학습대학으로 특화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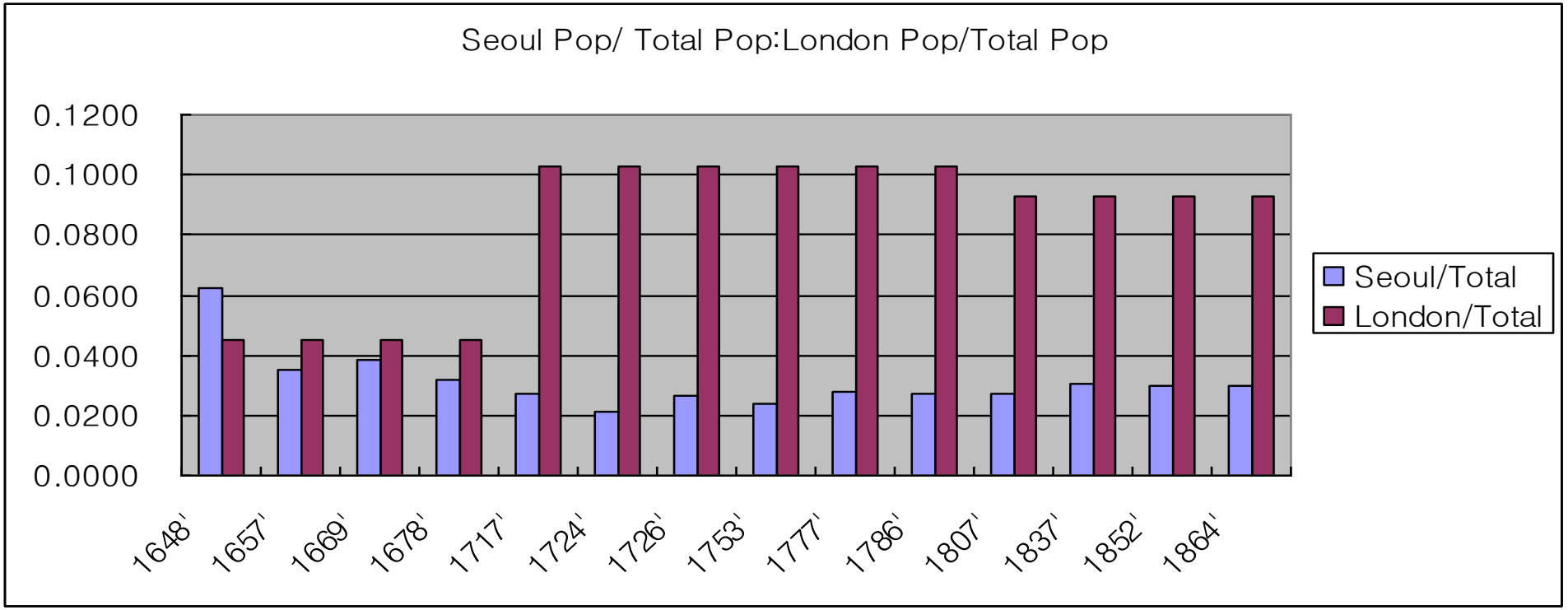
江華:獅子足艾/靑蘭石

韓山:苧

GLOBALIZATION:RURAL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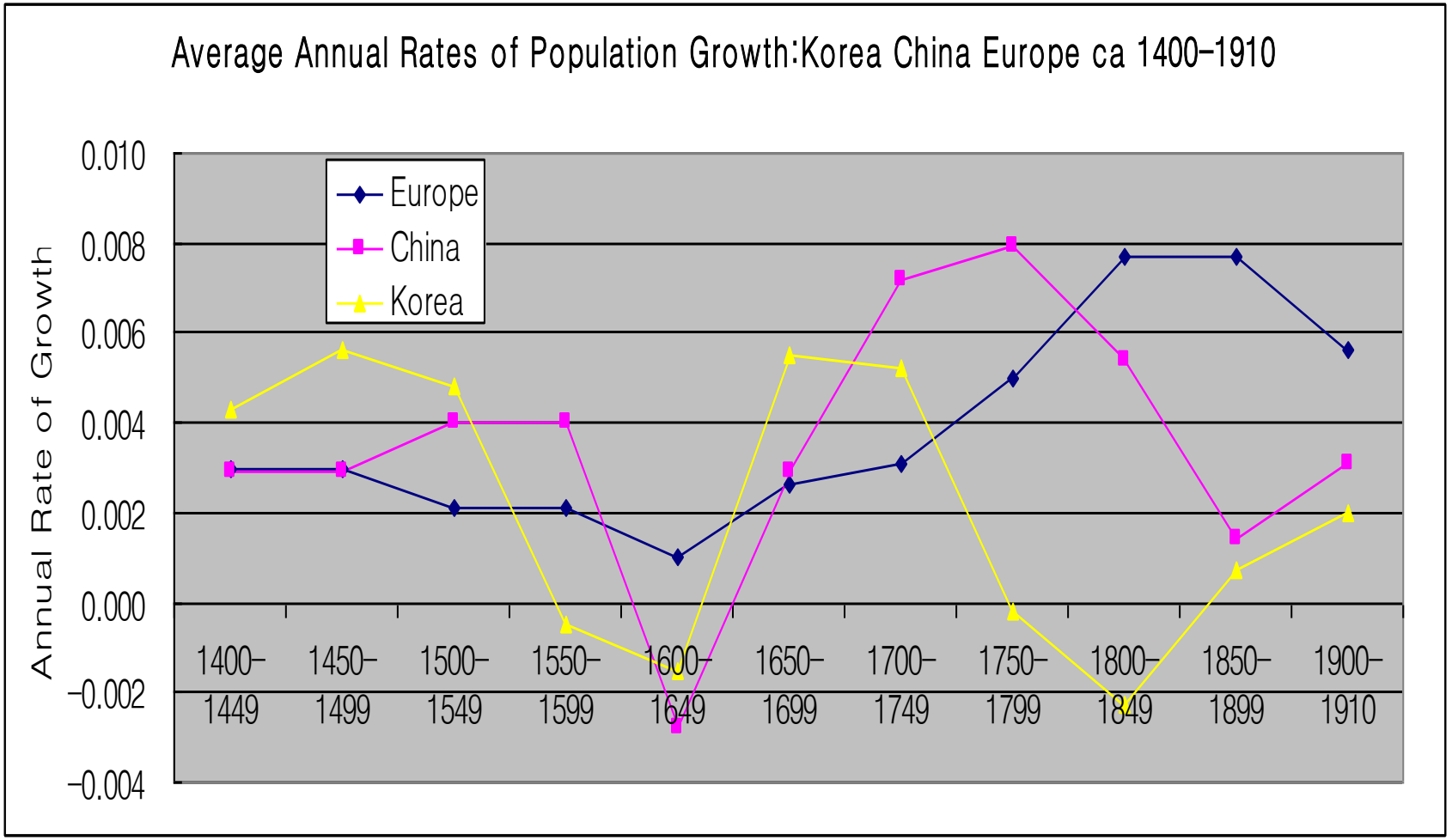


SEOUL/LONDON



Data source London: Angus Maddison OECD " The World Economy A Millennial Perspective" 2001. page 54, European Countries from De Vries 1984, pp30,36,39,46 European Urbanization Methuen London from Rozman(1998a pp33-36 Urban networks in Ch'ing China and Tokugawa Japan, Princeton University, Seoul Korea : jeongbomuheonbigo(增補文獻備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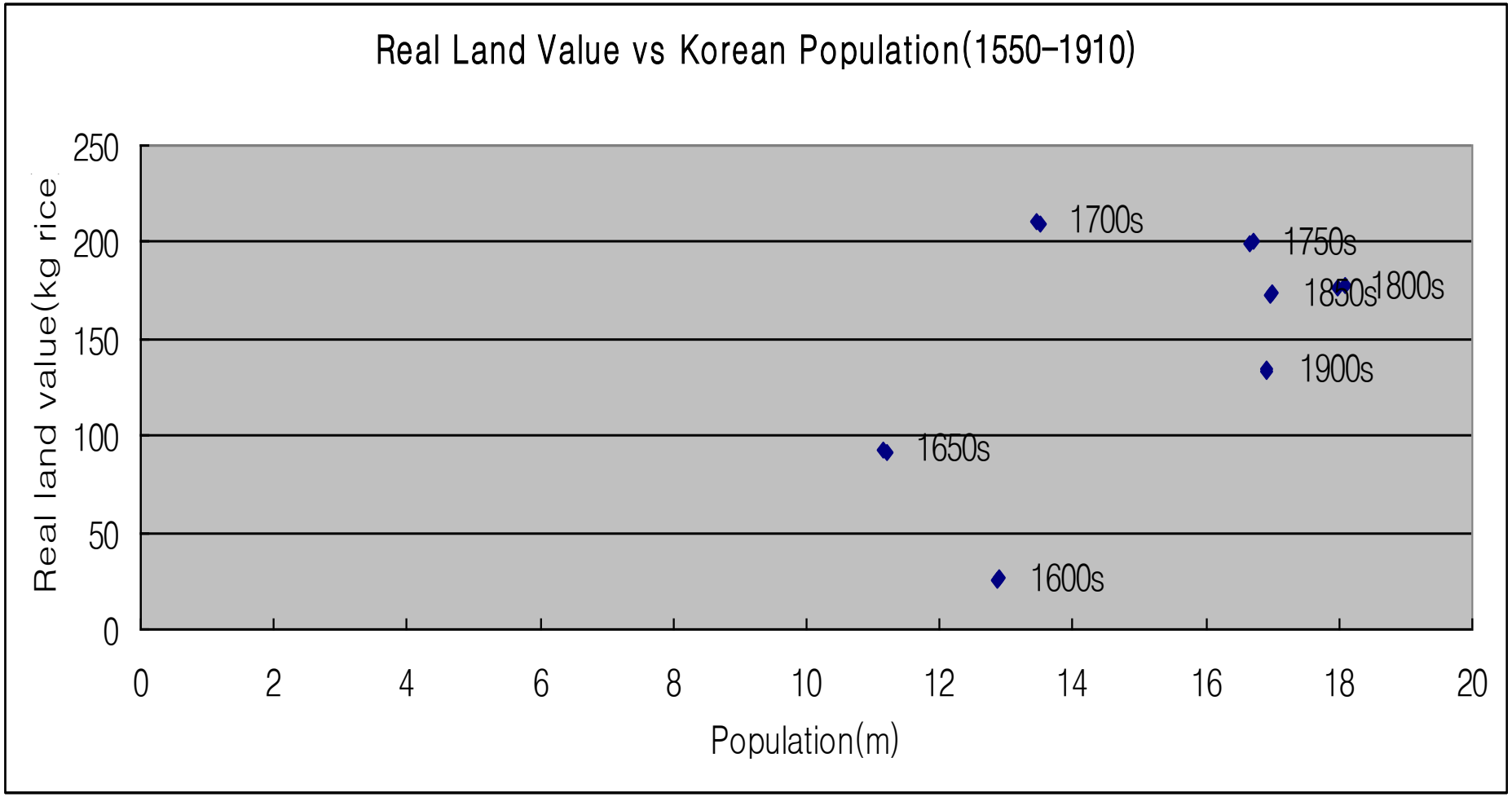
Population;Basic information



Commercialization based on rural market in pre-modern Korea

- Data source 1726:增補文獻備考 第165券 市糴考 鄕市條 ;Central government survey for market tax in 1726.
- 1770:東國文獻備考 市糴考 鄕市條 Central government survey for market tax in 1770.
- 1808:萬氣要覽 各廛 附鄕市 Central Government survey for market tax
- 1830;林園經濟誌 倪圭志 卷四 貨殖 八域場市 Private encyclopedia for profit
- 1832:慶尙道邑誌, Regional government survey1872:全國地圖, Market information on the map1876 嶺誌要選, Regional government survey 1909:韓國政府農商工部發行朝鮮要覽 Central government survey for market taxA: The number of county(郡,縣) in each province(道) Sum of Nation 334* except Capital SeoulCholla 53* except Jeju 3 countyB: The number of rural market(鄕市 or 場市) C: The ratio = B/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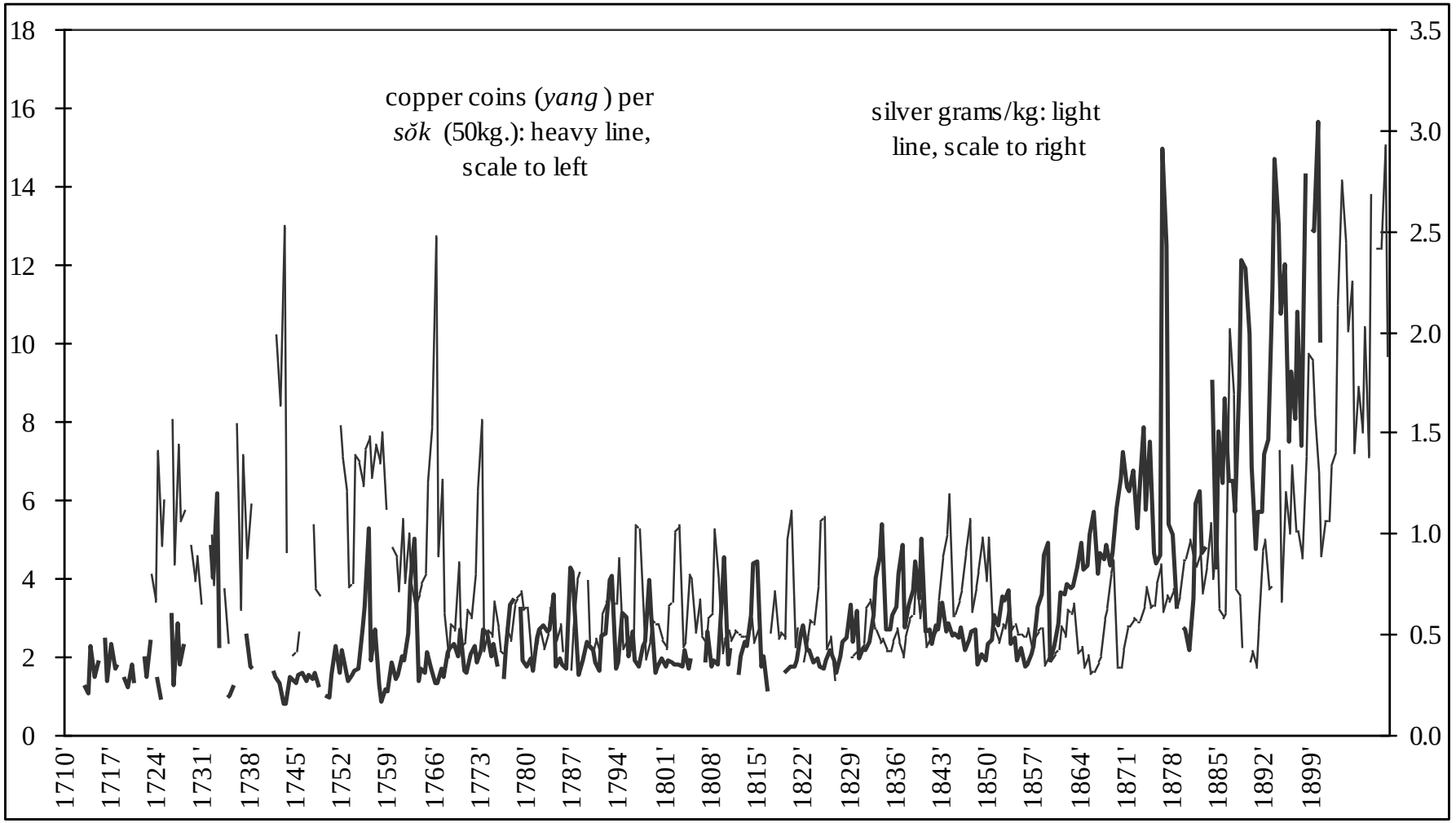
Real Land Value vs Population



- The land price and rice price of pre-modern Korea is well documented comparing other price information.
- Korea achieved substantial political stability after 1650 to 1850. There was little of the internal war or external war that proved so rich land sale document and account book reflecting the development of rural markets, but it is impossible to get estimate of real farm day wages using well documented dat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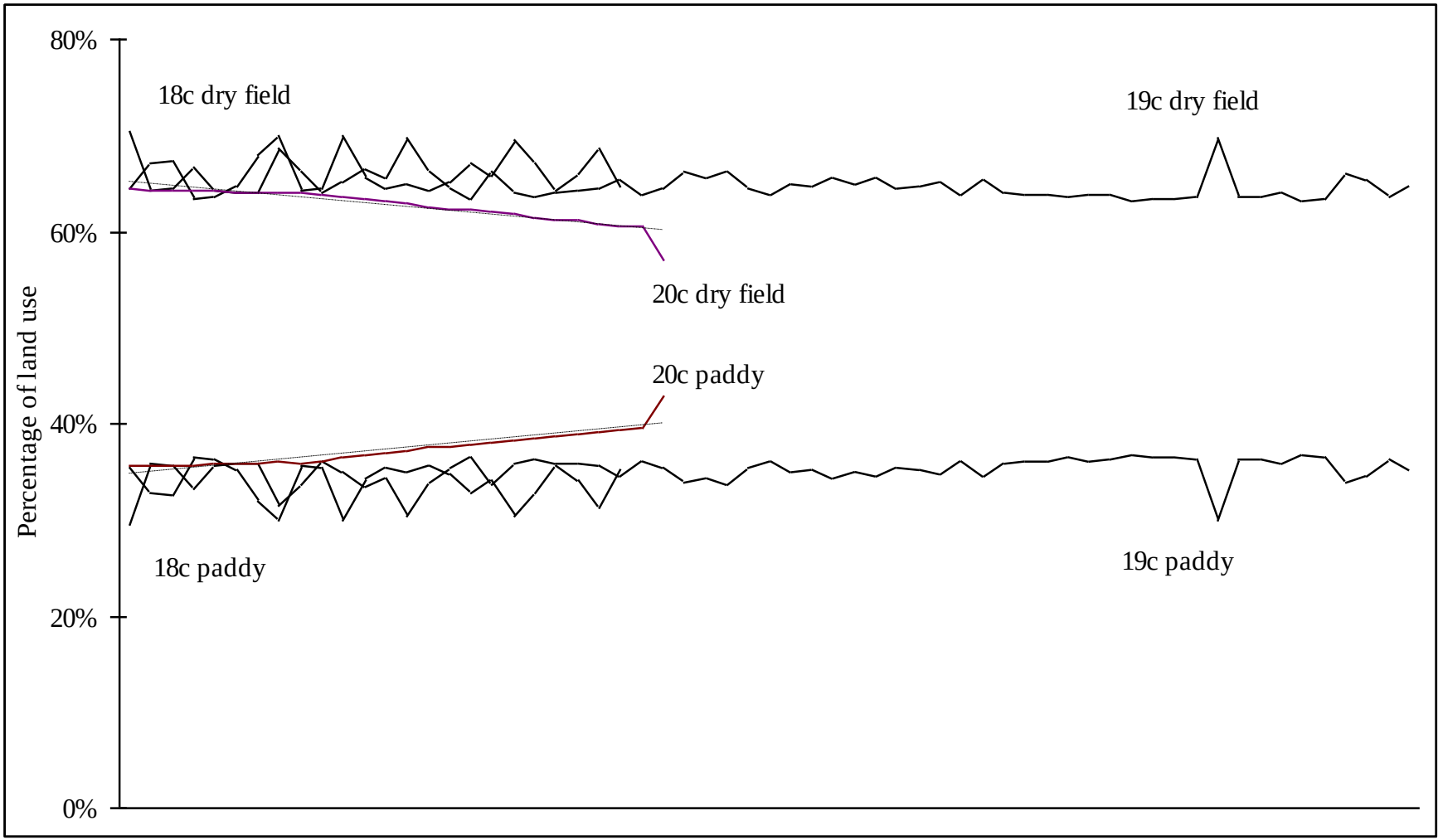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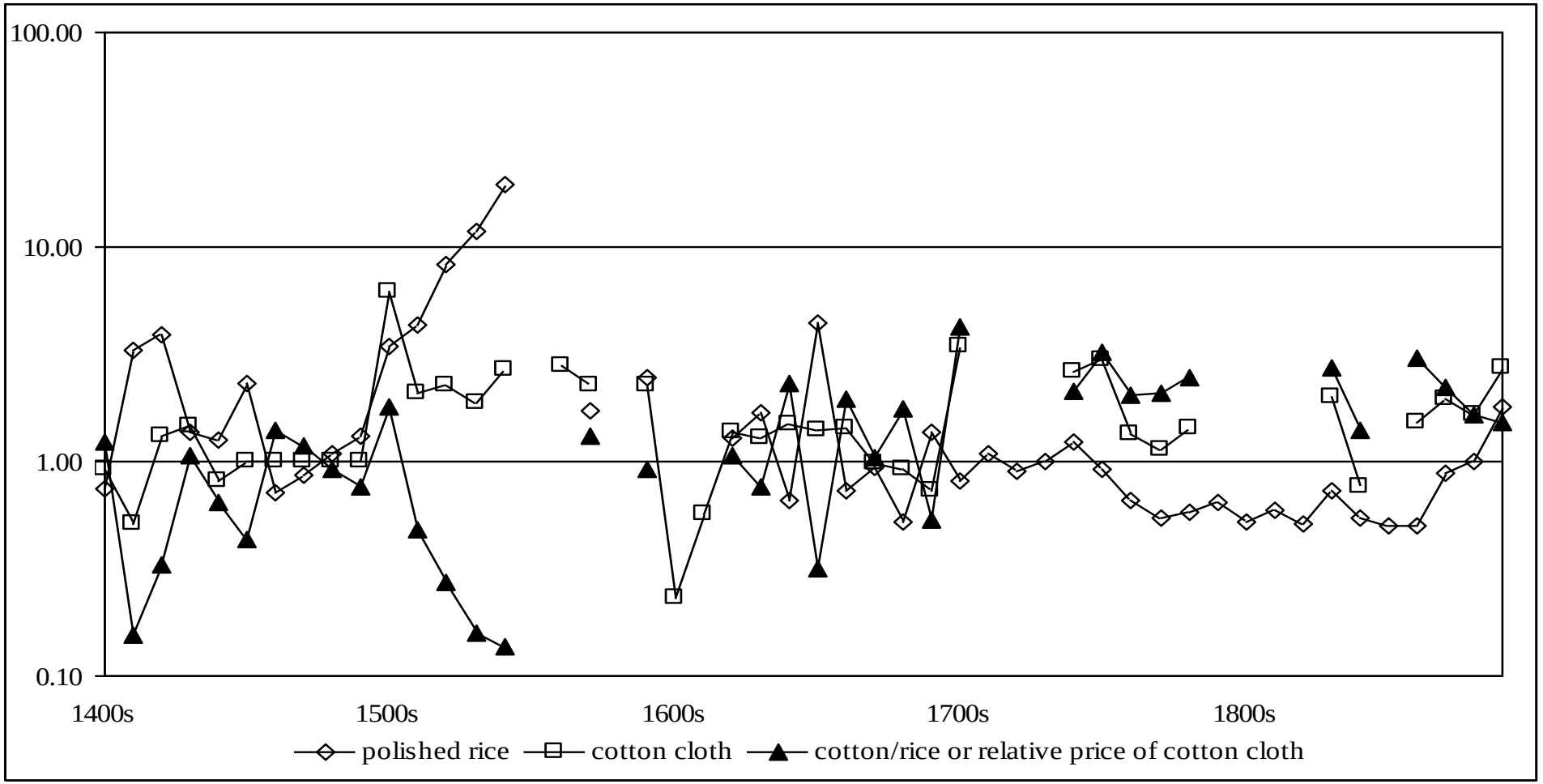
- We use real paddy land values(RLV) as the available evidence on productivity of pre-modern Korea. RLV series versus population reject the Malthusisn model. The figure 2 show that the RLV for pre-modern Korea agriculture from 1600s to 1750s versus the national population, we can not find out **tradeoff between higher population and a lower RLV**.
- The seventeenth century and eighteenth century were era when efficiency advances appears clearly comparing mid-nineteenth century. The economy of nineteenth century and early sixteenth century fundamentally positive check of Malthusian. The expansion of the Korean economy in the seventeenth –eighteenth centuries was the largely the product of increased birthrates or falling death rates combined technological advance and commercial advances suggested by Adam Smith.

Proto Glabalization:15th–18th Centuries



- Sources: For Yŏng'am (靈岩) (South Chŏlla): *Chokkye yonghagi*. For Haenam (海南) (South Chŏlla): Han'guk Chŏngsin Munhwa Yŏn'guwŏn, ed., microfilm, reel no. 35-003205-003216. For Changhŭng (長興) (South Chŏlla): Han'guk Chŏngsin Munhwa Yŏn'guwŏn, ed., microfilm, reel no. 006904. For Kosŏng (固城) (South Kyŏngsang): Ku, *Sŭngch'ong myŏngnok*. For Kyŏngju (慶州) (North Kyŏngsang): Han'guk Chŏngsin Munhwa Yŏn'guwŏn, ed., microfilm, reel no. 009574-009579. For Taegu (大邱) (North Kyŏngsang): Kim, "*Taegu*

Changes in Land Use Patterns (18th to 20th century)



Women vs Man: Relative prices for rice and cotton cloth in grams of silver (per kg of rice and per meter of cotton cloth in log.) 1400-1900